

일본 큐슈(九州)지역의 국제교류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정책의 원인과 현황

신영근*

요약: 최근 지역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관광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관광객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큐슈 지역에서는 한국인관광객을 겨냥한 국제교류 축제 및 이벤트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큐슈 지역이 타 국가들보다도 한국과 가장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둘째, 큐슈 지역에는 한일양국의 국제교류의 소재가 될 만한 한국관련 역사가 풍부하다는 점, 셋째, 큐슈지역은 일본 내에서도 특히 한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市町의 수가 많아, 국내 자매도시들과의 국제교류행사가 용이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큐슈 지역 내에서도 나가사키현(長崎県) 쓰시마시(対馬市)는 이상의 조건들을 가장 만족시키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의 국제교류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어: 지역 활성화정책, 국제교류, 축제, 이벤트, 큐슈

1. 서론

최근 문화, 그 중에서도 축제와 이벤트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정책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廖赤陽·王維, 2004). 본고에서는 큐슈지역을 사례로, 큐슈지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한국과의 국제교류를 이용한 축제와 이벤트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는지를 첫째,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입국현황을 통해 분석하고 둘째, 개별 축제와 이벤트의 개최현황을 통해 그 원인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에서 축제와 이벤트가 지역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대두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은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해체를 초래하여, 지역축제들 중에는 그 유지조차 곤란해진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쇠퇴 혹은 축소되어 가던 지역축제가 1980년대 이후가 되면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복원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는데(玉野, 1999), 그 주요 원인은 심각한 과소(過疎)문제에 직면한 지역들이 과소의 진행을 억제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제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과 그로 인한 지역 활성화에 주목한 것에 기인한다. 그 한 예로, 1979년 오오이타현(大分県)의 히라마츠모리히코(平松守彦)지사가 제창한 ‘일촌일품운동(一村一品運動)’은 지역 활성화정책의 선구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하나씩의 특산품을 육성하여

이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에 보강한 것임

* 큐슈대학교 인문과학원 지리학과 전문연구원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오오이타현의 성공과 다케시타(竹下)내각의 '고향 창생론(ふるさと創生論)'¹⁾의 시책과 맞물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산품뿐만 아니라 지역의 개성을 어필할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여, 축제와 이벤트의 개최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모색하게 되었다(大谷, 1986; 小松, 1997).

그 소재는 매우 다양하데, 지역의 자연과 역사, 전통을 살려 새로운 축제와 이벤트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는 관계없는 전혀 새로운 소재를 테마로 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행사도 있다. 또 역사가 긴 전통축제의 경우는 관광 상품화를 의식하여 개최기간이나 프로그램 등을 재구성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의 변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과거의 정책은 일본 내의 국내관광객 유치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세계적 규모의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과소지역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새로운 축제와 이벤트의 개최를 통해 장소의 매력을 국내외에 어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장소의 매력을 홍보하고 있는 큐슈지역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경제자립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다수의 축제와 이벤트가 창출되었다. 그에 따라 지리학뿐만 아니라 관광학, 경영학 등의 학문분야에서도 축제와 이벤트를 소재로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척되어 왔다. 그 중에서 관광객의 행태 분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축제와 이벤트의 경제적인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방문객의 통계분석을 통하여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차동욱(2005)은 전주국제영화제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 영화제의 활성화를 위해 젊은 층을 겨냥한 영화작품을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사례로 한 이승곤·한지훈(2005)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만족이 관광객의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또 김홍렬·윤설민(2006)은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보령머드축제와 춘천국제마임축제를 사례로 들고 방문객의 특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국제축제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의 연구들에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분석 및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또 대부분의 축제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차원에서의 차별성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큐슈지역이 특히 한국인관광객을 주 타겟으로 설정하여 지역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축제와 이벤트를 통한 지역 활성화전략의 또 다른 시각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큐슈지역의 7현, 즉 후쿠오카현(福岡県), 오오이타현, 나가사키현(長崎県),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사가현(佐賀県), 미야자키현(宮崎県), 구마모토현(熊本県)의 관광정책과를 중심으로 수집한 문헌자료와 인터뷰조사 등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2. 축제와 이벤트에 관한 용어정리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축제(祭り)라는 용어가 상점가의 바겐세일 등의 행사에 사용되는 등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축제'와 '이벤트'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森田(1990)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축제는 주기성, 공동체의 참여, 성성(聖性)/일상성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행사를 이벤트라고 하여 축제와 구분하였다. 또 小松(1997)도 축제의 특징을 주기적인 행사일 것, 공동으로 이루어질 것, 참가자들은 축제 특유의 규칙에 기초하여 행동할 것, 사람들의 관심을 한곳에 집중시킬 만한 상징이 있을 것, 이 상징이 참가자들에게 비일상적인 체험을 가능

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신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집단내부의 결속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벤트의 주최자가 의식하는 것은 신이 아닌 고객이며, 참가자들도 집단으로써의 결속을 의식하는 일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 양주(1998)는 일본의 축제동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일본에서 보통 축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의 종교시설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전통적인 생활양식 및 연중행사 등에 기초한,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축제를 떠올리기 쉬우나, 최근에는 특정 목적 하에 비종교적이면서 비전통적인 축제가 다수 개최되고 있음을 지적, 이를 ‘현대축제’라고 칭하고 ‘전통축제’와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김양주의 의견에 입각하여 현대축제를 전통축제와 구분하였다.

한국의 민속학자들(이은봉, 1982; 임동권, 1993; 김선풍, 1998)도 축제에 대해, 신에 대한 의례성과 주기성, 탈 현실성 등을 들고 있으며, 신이 존재하는 않는 행사를 이벤트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일 양국모두 신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벤트를 ‘○○축제’로 부르는 사례가 많고, 이벤트보다는 축제라는 명칭을 즐겨 사용하고 있

는 추세이다. 따라서 4장에서 소개할 큐슈지역의 축제와 이벤트의 사례에서는, 학술적으로는 이벤트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에 근거하여 행사명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3. 큐슈를 방문하는 아시아국가의 관광객과 관광정책

2003년 4월부터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Visit Japan Campaign(VJC)’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일본인의 해외여행객 수에 비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국내외에서의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이다. VJC 실시 이후 방일외국인관광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그림 1).

외국인관광객의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비율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1997년에는 한국의 경제위기로, 2008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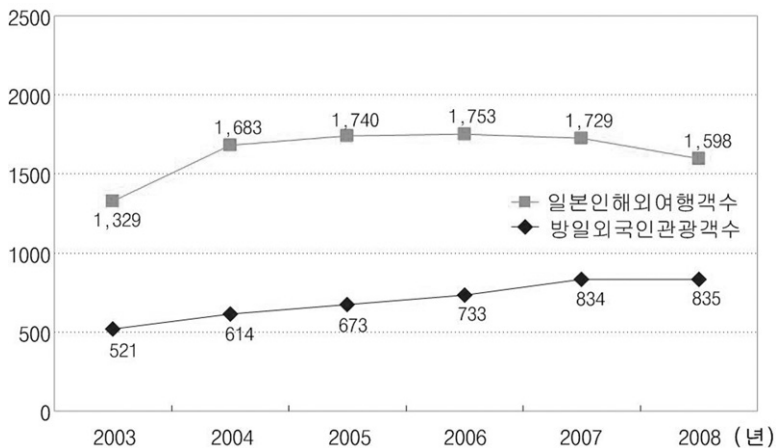


그림 1. 방일외국인관광객 및 일본인해외여행객 수의 추이

출처: 국토교통省(2006, 2007, 2008), 法務省入国管理局(2010) 자료에 의해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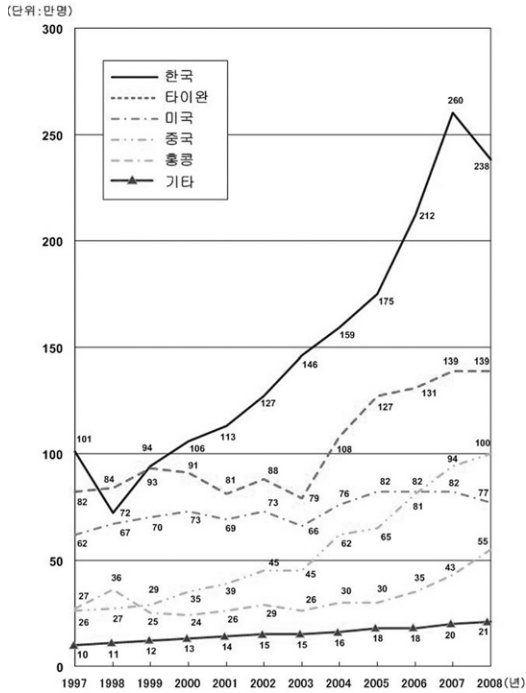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방일외국인관광객 수의 추이

출처: 国土交通省(2006, 2007, 2008) 자료에 의해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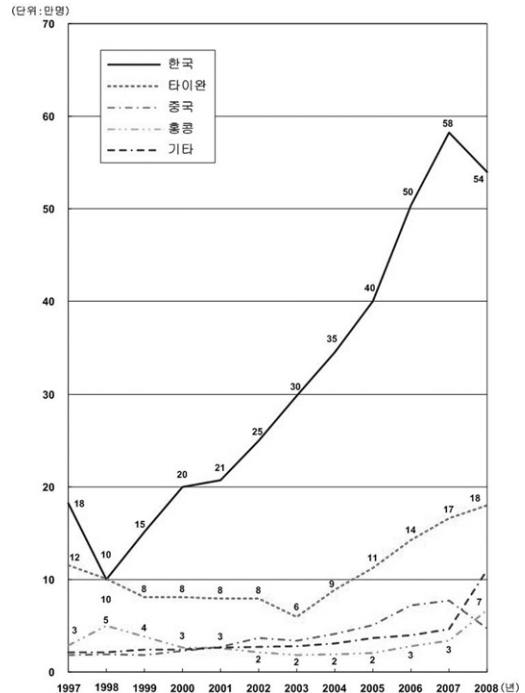


그림 3. 규슈지역의 국가별 외국인관광객 수의 추이

출처: 千相哲(2006), 国土交通省(2005, 2006, 2007, 2008) 자료에 의해 저자작성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엔화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방일한국인관광객 수가 조금 주춤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인관광객의 수는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내의 한국인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도 10년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타이완이 그 뒤를 이어 139만 명으로 16.6%를, 그리고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11.9%를 점하는 등, 아시아국가로부터의 관광객은 전체의 73.7%를 차지하고 있다(그림2).

규슈지역만을 살펴보면 그 동향은 더욱 현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관광객의 비율은 2003년 이후 거의 60%에 달하고 있다(그림3).

전술한 바와 같이 2008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엔화강세 현상으로 한국인관광객이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관광객이 급증한 이유로는 첫째, 2005년 3월부터 한국인관광객의 90일 이내의 방일비자가 면제된 점, 둘째, 2002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주5일근무제의 정착 및 확대실시, 셋째, 시기에 따른 변동은 있으나 특히 2005년 이후의 엔화약세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규슈지역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해외라는 점에서 한국인관광객의 유치태세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日本政府觀光局(JNTO), 2007).

일본정부는 1986년부터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관광 진흥을 도모하여 왔는데(日本政府觀光局(JNTO), 2007), 최근의 한국인관광객의 증가에 발맞추어 한국에서의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VJC 사업 중에서 한국은 일본정부가 선정된 12

개국의 중점시장 중의 하나로, 한국 내에서의 활동으로는 당시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수상이 직접 출연한 TV홍보물의 방영과, 그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수상부부의 메시지가 실린 신문광고, 그 외 영화관 내, 지하철 내, 옥외 스크린, 인터넷, 지방 도시에서의 박람회 등을 통하여 방일여행의 매력을 홍보하고 있다(日本政府觀光局(JNTO), 2007). 또 2006년부터는 ‘한중일관광장관회담’을 통해 관광교류 및 협력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日本政府觀光局(JNTO), 2007).

한국이외의 지역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대만에서는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중국에서는 일본여행프로그램의 TV제작지원과 지방도시에서의 박람회 개최, 그리고 신문광고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펼치고 있으나(日本政府觀光局(JNTO), 2007), 한국에서의 홍보활동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의 정부차원에서의 홍보활동 외에도 한국인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큐슈지역에서는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결성한 정책기관인 ‘큐슈지역전략회의(九州地域戦略會議)’가 ‘큐슈는 하나’라는 슬로건 하에 2005년 ‘큐슈관광추진기구(九州觀光推進機構)’²⁾를 발족하였다. 이 기구는 7개의 현이 공동으로 국내외에서 큐슈관광을 홍보함으로써,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큐슈의 이미지를 보다 총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국내외관광객의 증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九州經濟調査協會, 2003; 2008). 그 배경에는 1970년대 이후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차세대 선도 산업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관광산업이 주목을 받으며 큐슈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게 된 것이다(九州經濟調査協會, 2003).

큐슈관광추진기구의 활동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일본 내 대도시에서의 큐슈지역 관광홍보와, 둘째는 한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큐슈지역의 홍보활동이다. 후자와 관

련하여 2005년에는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매스컴 관계자와 여행업관계자의 초청사업이 이루어졌고, 2006년 3월에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큐슈관광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여 온천, 골프, 음식, 자연, 축제 등 큐슈 7현의 다채로운 매력을 어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중국 台北에서도 여행업관계자를 대상으로 큐슈관광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였다(日本政府觀光局(JNTO), 2007).

아시아국가관광객의 관광패턴을 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온천 혹은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단체 관광형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여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광행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여행상품이 기획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시아국가의 관광객을 겨냥한 축제와 이벤트의 개최이다. 기존의 지역축제를 관광 상품을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서, 본래 나가사키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소규모 축제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나가사키시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한 ‘나가사키 랜턴 페스티벌’을 들 수 있다(九州經濟調査協會, 2003; 2008). 이 외에도 큐슈지역에서는 아시아를 의식한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는데 다음 4장에서는 그 현황 및 원인과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4. 큐슈지역의 국제교류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의 실태와 원인

2010년 현재, 큐슈지역에서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축제와 이벤트는 표 1과 같다.

전체적으로 최근 20년 이내에 만들어진 축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전통축제의 국제화를 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삼평의 백자창업(白磁創業)을 기념하여 오

표 1. 류슈지역의 국제교류 축제와 이벤트의 현황

장소	명칭유래	목적	최초개최년도 (개최시기)	현황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福岡市)	Asia Month 1989년에 개최한 아시아태평양박람회가 계기가 되어, 1990년부터 Asia Month라는 명칭으로 개최.	아시아를 이해하고, 아시아 사람들에게 후쿠오카시를 알리기 위하여.	1989 (매년 9월)	후쿠오카 아시아 문화상, 후쿠오카 국제영화제, 아시아 태평양 페스티벌 외에도 각종 전람회, 심포지엄 등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
사가현 사가시 (佐賀市)	서복(徐福) 국제심포지엄 2200년 전, 진시황제의 명을 받아 불로불사의 약초를 구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일본까지 왔다고 전해지는 서복설화에 기초함.	서복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서복이 경유했다고 하는 한국, 타이완과의 국제교류와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2008 (10월11~12일)	심포지엄 외에도 서복이 처음 일본에 상륙했다고 전해지는 사가시 모로토미(緒富)町와, 서복이 통과했다고 전해지는 다케오(武雄)온천과 후루유(古湯)온천에서의 이벤트를 통해, 사가시의 관광지와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음.
사가현 카라쓰시 (唐津市) 친제이쵸 (鱧西町) 카가라지마 (加唐島)	무녕왕 탄생제 백제의 25대 왕이었던 무녕왕이 1500년 전 친제이쵸 카가라지마로 추정되는 섬에서 탄생하였다는 일본서기에 근거함.	무녕왕을 통한 한일 교류와 그로인한 친제이쵸의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2002 (매년 6월)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시의 학자와 시민 등이 참가하여 양국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음.
사가현 아리타쵸 (有田町)	도조제(陶祖祭) 조선시대 도공인 이삼평(李參平)이 이즈미야마(泉山)에서 백자광을 발견하고, 텐구다니(天狗谷)에서 가마를 열어 도자기를 구웠다는 통설에 기초함.	이삼평의 현창(顯彰)사업과 아리타(有田)도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1917 (매년 5월 4일)	1990년부터 아리타町와 우호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도자문화협회가 매년 방문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만 1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미야자키현 미사토쵸 (美郷町) 키쵸우쵸 (木城町)	음력12월(師走) 축제 나·당연합군에 패한 백제 왕족은 당시 우호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으로 망명하였는데, 왕은 미사토町에, 왕자들은 키쵸우町에 이주하여 살았다는 전설에 기초함.	타향에서 생을 마감한 백제 왕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천년 이상의 역사 (매년 음력 정월 전일)	미사토町는 일본 전국의 백제문화 발자취를 소개하는 백제관(百濟の館)(1990년 건설)을 비롯하여, 백제의 왕족인 정가왕의 유품과 고분 등의 홍보를 통하여 한국인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가고시마현 미나미 오오스미쵸 (南大隅町) 네지메가와 (根占川)	dragon boat festival 구 네지메町는 후나라(倭奈良) 천황때 중국, 류큐와의 무역이 왕성하였으나, 무역이 번성할수록 당인(唐人)과 남만인(南蠻人)과의 세력다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1988 (매년10월 중순~하순) 조류에 따라 개최시기에	지역 내외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총 120(2006년)팀이 참가하고 있음. 축제 당일에는 장이 열려 지역특산물 등이 판매되고 있음.

장소	명칭유래	목적	최초개최년도 (개최시기)	현황
	툼이 거세지자, 禰獲씨가 보트 경쟁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함.		변동 있음.	
쿠마모토현 키쿠치시 (菊池市)	한국영화제 in 키쿠치	좀 더 알자 한국! 이라는 테마로,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2004 (매년 8월)	한국영화 중 매년 3편을 선정하여 상영하고 있음.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長崎市)	나가사키 랜턴 페스티벌 나가사키시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정월 춘절제(春節)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개최되어오던 풍습에 기초함.	나가사키시의 관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1993 (구 정월~15일간)	축제 기간에는 시 중심가에 약 15,000개의 랜턴이 장식되고, 중국 전통예능과 황제퍼레이드 등의 행사가 개최되어, 일본 국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음.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對馬市) 이즈하라초 (巖原町)	이즈하라 항구축제 (쓰시마 아리랑축제) 쓰시마 아리랑 축제는 조선 통신사가 통과한 첫 번째 지점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함.	쓰시마시(2004년 합병)의 상공업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1964 (매년8월 첫째 주 토·일)	1988년부터 쓰시마 아리랑 축제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사용. 주요 행사인 조선통신사행렬에는 쓰시마 측의 공식초청에 의해 매년 부산시관계자가 축제에 참가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의 참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2005년부터 한국인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미쯔시마초 (美津島町)	쓰시마 친구음악제	음악 콘서트를 통한 한일 교류와 그로인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1996 (매년8월 셋째 주 토요일)	1998년의 방문객 수는 도내(島内)에서 960명, 도외(島外)에서 20명, 한국에서 20명이 참가하여 약 1,000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총2,000여명이 참가하였고, 그 중 한국인관광객은 300여명이었음.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카미쓰시마초 (上對馬町)	국경 마라톤 in 쓰시마	한국과의 국제교류와 그로인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1997 (매년7월초)	2001년 한국 '경주 빛꽃마라톤 대회'와 자매협정을 맺음. 2007년 한국에서 280명이 참가하였음.

출처: 각 현청 관광담당부서에서 수집한 자료, 각 행사의 실행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 각 행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랫동안 지역주민들에 의해 개최되어 오던 사가현의 도조제와, 이국땅에서 운명을 마감한 백제 왕족의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히끼(比木)신사와 미카도(神門)

신사가 중심이 되어 개최하여 온 미야자키현의 음력 12월 축제와 같이, 당시에는 지역의 소규모 축제로 운영되어 오던 축제가, 최근 정부에 의한 지역 활성화

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국제교류를 지향한 축제로 변모하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 새로운 축제와 이벤트의 창출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서북연구를 해 오던 민간단체가 관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게 된 사가현의 서북국제심포지엄과, 자매도시(공주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개최하고 있는 무녕왕 탄생제, 상공회의소의 기획에 지역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조선통신사행렬을 재현하고 있는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이즈하라 항구축제(쓰시마아리랑 축제)등과 같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 새로운 축제와 이벤트를 창출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한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한국인관광객 무비자운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구마모토현 키쿠치시가, 지역주민의 협력을 얻어 관민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한국영화제 in 키쿠치와, 시와 상공회의소,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개최하고 있는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쓰시마 친구음악제와 국경마라톤 in 쓰시마 등과 같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는 관계없는, 전혀 새로운 축제와 이벤트를 창출하는 경우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국제교류를 이용한 관광객의 증가와 그로 인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행사들로, 특히 한국과 관련된 축제와 이벤트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이나 그 외의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한국이 큐슈와 가장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큐슈로 가는 교통편은 항공편과

표 2. 큐슈와 한국간의 교통편과 그 추이

노선		운항회사	편수(주 기준)		
			1997.12	2002.12	2011.8
항공편	서울~후쿠오카	일본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8*	28*	42
	부산~후쿠오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1	9	28
	제주~후쿠오카	아시아나항공	4	5	3
	서울~미야자키	아시아나항공	-	3	3
	서울~가고시마	대한항공	3	3	3
	서울~구마모토	아시아나항공	-	-	3
	서울~나가사키	대한항공	-	2	-
	서울~오오이타	대한항공	2	2	-
	합계		48	52	82
배편	부산(페리)~시모노세키(下関)	관부페리, 부관페리	7	7	7
	부산(고속선)~하카타(博多)	JR큐슈, 미래고속해운	7	28~35	35~40
	부산(페리)~하카타(博多)	카멜리아 라인	3	3	6~7
	부산(고속선)~이즈하라	대아고속해운	-	5	3
	부산(고속선)~히타카즈(比田勝)	대아고속해운	-	2	4
	광양(페리)~시모노세키	광양페리	-	-	2
	합계		17	45~52	57~63

주: 1) * 표시 중 7편은 부산경유.

2) 후쿠오카~서울간의 일본항공은 기업경영부진으로 2005년 폐지.

3) 이즈하라, 히타카즈는 쓰시마시 내의 지역명.

출처: 九州經濟調査協會(2003), 각 운항회사 홈페이지의 운항스케줄을 참고하여 저자작성

배편 모두 편수도 많고 또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큐슈지역에는 한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및 유적·유물이 풍부하여 이를 이용한 한국인관광객의 유치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예로, 사가현에서는 무녕왕 탄생제와 조선시대의 도공이었던 이삼평을 기리기 위한 도조제가, 미야자키현에서는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백제왕족의 명복을 빌기 위한 음력 12월 축제가, 그리고 나가사키현에서는 조선통신사 관련 쓰시마아리랑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모두 한국관련 역사를 축제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셋째, 큐슈지역은 한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한국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행사의 추진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표 3, 그림 4). 특히 쓰시마아리랑축제는 처음에는 쓰시마시의 자매도시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와의 소규모 교류이벤트에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한국사회에서의 인지도가 상승하여 한국 전역에서 쓰시마시를 방문하는 이벤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신영근,

표 3. 일본의 한국과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

지역	자매결연 체결 수
홋카이도(北海道)	6
토호쿠(東北)	7
간토(関東)	19
츠후(中部)	21
킨끼(近畿)	19
츄고쿠(中国)	29
시코쿠(四国)	2
큐슈(九州)	31

출처: 財)自治体国際化協会(2011년)의 국제교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09).

큐슈지역 내에서도 특히 나가사키현 쓰시마시가 한국과의 국제교류를 이용한 축제와 이벤트의 개최에 가장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쓰시마시가 일본 본토보다도 한국과 더 가깝고 교통도 편리한 외국이라는 점이



그림 4. 일본의 都道府県별 한국과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2011)

주: 1) 都道府県별로는 中国지방의 돗토리현(鳥取県)이 한국과의 자매결연 체결 수가 10건으로 가장 많다. 그 이유는 1994년 동북아거점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양 지역이 활발하게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기 때문인데, 관광산업 측면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인지도도 낮고 교통도 불편한 편이다(돗토리현 교류추진과)

출처: 財)自治体国際化協会(2011년) 국제교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쓰시마시와 부산광역시의 거리는 49.5km인 반면, 큐슈 본토와는 132km나 떨어져 있다. 둘째, 쓰시마시에는 조선통신사뿐만 아니라 한국관련 역사와 유적이 큐슈의 타 지역보다도 풍부하고 섬 내에 집약되어 있어 축제의 소재 뿐 아니라 관광자원의 역할도 한다는 점이다. 그 예로 시내에는 조선통신사관련 유적과 유물 외에도, 박제상 순국비, 백제식산성인 금전성(金田城), 최익현 순국비,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조선역관사비 등이 분포하고 있다. 셋째, 국제교류 측면에서는 주로 한국과 교류하고 있다는 점³⁾, 넷째, 섬 지역이 안고 있는 청장년층의 이혼향도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여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시장규모도 큰 한국인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쓰시마시는 한국과의 국제교류와 그로 인한 지역 활성화의 움직임이 큐슈 지역 내에서도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본 큐슈지역에서 지역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는 국제교류 행사, 그 중에서도 축제와 이벤트의 사례를 통해, 그 행사들의 특징과 개최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축제의 국제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처음에는 지역의 소규모 축제로 개최하여 오던 것이 관에 의한 지역 활성화정책과 맞물리면서 국제교류를 의식한 축제로 변모하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 새로운 축제와 이벤트의 창출 현상을 들 수 있다. 그 테마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 새로운 축제와 이벤트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는 관계없는 전혀 새로운 축제와 이벤트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제교류 행사들 중에는 외국인관광객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한국인관광객을 겨냥한 축제와 이벤

트가 많이 개최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큐슈지역이 한국과 가장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둘째, 큐슈지역에는 국제교류의 소재가 될 만한 한국관련 역사가 풍부하다는 점, 셋째, 큐슈지역은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市町의 수가 가장 많아, 한국 자매도시들과 국제교류행사를 개최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큐슈지역 내에서도 특히 나가사키현 쓰시마시는 이상의 조건들을 가장 만족시키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의 국제교류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정책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화, 소자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역발전의 정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 이상의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전략은 국내뿐만 아니라 근린 해외유동인구의 축진을 통한 활성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문제해결의 시야와 가능성을 한층 열어놓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 지역 대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고찰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주

- 1) 1988년 다케시타 내각은 동경중심의 발전패러다임을 시정하고 지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3,268개의 시정촌(市町村)에 일률적으로 일억 엔씩을 지급,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小松, 1997).
- 2) 조직구성은 큐슈의 현청에서 각 1명씩 7명, 민간에서 16명이 참가하고 있고, 본부는 후쿠오카시 텐진(天神)에 있다(上野, 2008).
- 3) 쓰시마시는 미국 괌(1977년 체결)과, 그리고 한국 부산광역시 영도구(1986년 체결)와 각각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지리적인 위치 상 한국과의 국제교류가 그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財)自治体國際化協會, 2011).

참고 문헌

- 김선풍, 1998, “한국 축제의 본질”, 국제아세아민속학 2, pp.17-32.
- 김양주, 1998,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축제의 사회적 문과 세계의 축제-일본의 마츠리와 지역활성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98년도 학술대회자료집 pp.45-73.
- 김흥렬·윤설민, 2006, “여가활동으로서의 문화관광축제별 방문객 특성에 관한 연구: 춘천국제마임축제와 보령머드축제 방문객을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3), pp.227-235.
- 대아고속해운 홈페이지(운항스케줄), <http://www.daea.com>(최종열람일: 2011년 8월 26일)
- 대한항공 홈페이지(운항스케줄), <http://kr.koreanair.com>(최종열람일: 2011년 8월 26일)
- 미래고속해운 홈페이지(운항스케줄), <http://www.mirejet.com>(최종열람일: 2011년 8월 17일)
- 부관페리 홈페이지(운항스케줄), <http://pukwan.co.kr/pukwan/index.html>(최종열람일: 2011년 8월 26일)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운항스케줄), <http://flyasiana.com/index.html>(최종열람일: 2011년 8월 26일)
- 이승곤·한지훈, 2005, “지역축제 서비스 품질의 만족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19(2), pp.229-313.
- 이은봉, 1982, 놀이와 축제, 서울: 주류.
- 임동권, 1993, “한국의 축제”, 중앙민속학 5, pp.251-256.
- 차동욱, 2005, “축제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국제영화제 수요시장분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7(3), pp.133-149.
- 国境マラソンIN対馬, <http://www8.ocn.ne.jp/>(최종열람일: 2010년 6월 14일)
- 九州経済調査協会, 2003, 2003年版九州経済白書: 新しい観光·集客戦略.
- 九州経済調査協会, 2008, 2008年版九州経済白書: 地域浮沈の分水嶺~拡大する地域格差と九州経済.
- 国土交通省, 2005, 平成17年版観光白書.
- 国土交通省, 2006, 平成18年版観光白書.
- 国土交通省, 2007, 平成19年版観光白書.
- 国土交通省, 2008, 平成20年版観光白書.
- 関釜フェリー(운항스케줄), <http://www.kampuferry.co.jp>(최종열람일: 2011년 8월 26일)
- 大谷英二, 1986, “地域イベントと地域振興”, 都市問題研究, 38(8), pp.27-39.
- 対馬市WEB通信局(국제교류), <http://www.city.tsushima.nagasaki.jp>(최종열람일: 2010년 4월 30일)
- 対馬ちんぐ音楽祭, <http://www.chingu.jp/>(최종열람일: 2010년 5월 3일)
- 法務省入国管理局, 2010, 日本人出国者数.
- 森田三朗, 1990, 祭りの文化人類学, 京都: 世界思想社.
- 上野真也, 2008, 地方分権と道州制, 東京: 成文堂.
- 小松和彦編, 1997, 祭りとイベント, 東京: 小学館.
- 申 英根, 韓国と日本における「文化」を利用した地域活性化政策に関する研究, 九州大学地理学博士学位論文.
- 玉野和志, 1999, “都市祭祀の復興とその担い手層: 小山両社祭を事例として”, 都市問題, 90(8), pp.25-38.
- 厳原港祭り対馬アリラン祭, <http://f43.aaa.livedoor.jp/~ariran/>(최종열람일: 2010년 6월 25일)
- 廖赤陽·王維, 2004, “ローカル・イニシアティブにおける伝統の創造: 長崎ランタンフェスティバル(春節祭)とニューエスニシティー”,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46, pp.45-68.
- 日本政府観光局(JNTO), 2007, JNTO国際観光白書.
- 長崎ランタンフェスティバル, <http://www.nagasaki-lantern.com>(최종열람일: 2010년 4월 30일)
- 財自治体国際化協会, 2011, 国際交流統計.
- 千相哲, 2006, 九州のインバウンド旅行, 唐津アジアの奥座敷検討委員会報告資料.
- カメラライン(운항스케줄), <http://www.camellia-line.co.jp/>(최종열람일: 2011년 8월 26일)
- JR九州(운항스케줄), <http://www.jrbeetle.co.jp/index.html>(최종열람일: 2011년 8월 26일)
- 교신: 신영근, 812-8581, 日本福岡県福岡市東区箱崎 6-19-1 九州大学文学部地理学研究室, 전화: +81-92-642-2430, 팩스: +81-92-642-2430, 이메일: hohohomay@hanmail.net
- Correspondence: Young-Kun Shin, Department of Geography, Faculty of Letters, Kyushu University, 6-19-1 Hakozaiki Higasi-ku Fukuoka City, Fukuoka

614 신영근

Pref, 812-8581, Japan, Tel: +81-92-642-2430, Fax:
+81-92-642-2430, e-mail: hohohomay@hanmail.net

최초투고일 2011년 10월 20일

최종접수일 2011년 11월 5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4, No.4, 2011(603~615)

The Causes and Status of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by International Exchanges in Kyushu, Japan

Young-Kun Shin*

Abstract : This article explores the causes of why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exchange festivals and events regarding South Korea in Kyushu, Japan. It can be explained as follows. Firstly, Kyushu is the closest region to South Korea and there are many transport links between the two places. Secondly, Kyushu has many rich historical sites relating to Korea which would be ideal themes for international exchange festivals and events. Thirdly, Kyushu has the highest number of sister city connection with South Korea in Japan. This means that it is easy to hold international exchange festivals and events with the sister city. Tsushima city in Nagasaki prefecture is thought to best encompass all of the above criteria. Therefore, it would seem that Tsushima city is especially eager to hold international exchange festivals and events with South Korea as a means of meeting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Keywords :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international exchanges, festivals, events, kyushu

*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Geography, Kyushu University